

장춘시 인민거리

북산가두

삼림 주제 립체화단으로 더욱 화려해지다



장춘역 남광장의 '생태가 좋은 삼림도시' 주제 화단

일전 장춘시 인민거리 연선 7 곳의 립체화단 채색 작업이 순조롭게 완수되었다. 이번 작업은 세계 삼림의 날의 '삼림과 혁신' 주제에 초점을 맞춰

생태경관과 문화 전승의 유기적인 융합을 촉진했다. 장춘역 남광장에는 '생태가 좋은 삼림도시'를 주제로 한 화단을 만들

고 '흑송, 꽃물결, 꽃'을 주요 원소로 하여 새시대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춘의 도시 이미지를 구현했다.

인민광장 남쪽에는 '진흥 돌파가 한창' 주제의 화단을 만들고 역사관축(历史卷轴)을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

어린이공원 정문 앞은 '동심으로 꿈을 꾸다'를 주제로 활발하고 귀여운 만화 요소의 소품과 상목식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공농광장 동남쪽에는 '분진장춘'(奋进长春)을 주제로 화단을 만들고 흥기 자동차, 고속철, 위성 등 요소들을 연결함으로써 자동차산업과 위성 원격감지 등 분야에서 거둔 장춘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공농광장 서북쪽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한 화단은 장광위성 '길림 1호'를 주요 경물로 하여 길림성의 자주적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를 전시했으며 '단결, 혁신, 분투, 실속'의 장광위성 정신을 구현했다.

남삼환로와 인민거리 교차점 서남쪽에는 '삼림도시 도시숲'을 주제로 화단을 배치하여 숲이 도시로 들어오고 도시가 숲을 껴안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장춘시정부 동문 조각 아래 화단은 군자란 모양을 핵심으로 하고 그 구도에 북방 특유의 '설화'(雪花)를 융합했는데 조국의 번영과 부강, 국태민안을 의미하고 있다.

/글 사진 오건기자



자치주 창립 72주년 경축행사 진행



최근 연길시 북산가두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2주년 경축행사가 연길시 청년회관에서 열렸다. 북산가두의 여러 사회구역 배우들은 <아름다운 연변>, <연변을 사랑한다>, <꽃>, <조국을 축복한다> 등 알심들여 준비한 14가지 문예종목으로 자치주 창립 72주

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날로 새로워지는 연변의 모습을 반영했으며 연변 여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대외에 알렸다.

/리성복특약기자



연길—장백산 도시간 버스 시험 운행 개시



8월 30일,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에서 집행 운행하는 연길—장백산 도시간 배스가 시험운행을 개시했다. 시험 운행 첫날, 매 배스마다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유한회사는 연길과 장백산 두 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8월 30일부터 50인승 호화배스 16대를 투입, 매일 23회 46대(계절, 려객 흐름 상황에 따라 조정)를 보강한다.

배스는 연길과 장백산 북쪽풍경구를 시발점과 종착역으로, 왕복

시 연길도로려객운수총역, 공신운수그룹에서 집행 운행하는 연길—장백산 도시간 배스가 시험운행을 개시했다. 시험 운행 첫날, 매 배스마다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려객은 출행 365, 12306, 씨트립 등 플랫폼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0433-2909345 나 2909338에 전화하여 예약 구매할 수도 있다.

해당 도시간 배스는 한달간의 시험운행을 거쳐 9월 30일에 정식 운행에 들어가게 된다.

/리전기자



최근, 연길시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공청단연길시위와 연길시융합매체중심(연길라지오텐텔레비죤방송국)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연길의 첫 청년토크쇼 '나의 청춘은 연길에서'

가 원만히 결속되었다.

지난 3월초부터 공청단연길시위는 연길의 여러 기층 공청단조직과 손잡고 향촌진흥, 귀향창업, 시장집합, 물·열공급, 훈인등기, 사회구역사업,

당사업과 공청단사업 등 다양한 분야와 직종의 청년 대표 21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연길시융합매체중심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의 특별취재를 통해 청년 대표들이 연길에 뿌리를 내리고

연길에서 분투하는 청춘 로정을 공유하고 성장과 탈바꿈하는 '청춘기억' 및 아름다움과 행복이 가득한 '청춘순간'을 되새겼다.

생방송실에서 그들은 사업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성장 과정에서의 사소한 경험들과 생활 속의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청춘의 긍정에너지 전파했다. 아울러 착실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착실하게 일하는 연길 청년들의 정신풍모를 보여주었으며 도시 발전과 청년 성장의 '쌍방향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연길 시급 매체 플랫폼의 총 조회수는 5.6만회를 넘었다.

연길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길 청년들의 목소리와 좋은 이미지를 널리 전파할뿐더러 생기발랄하고 진취적이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하여 사회주의 현대화의 아름다운 연길 건설에 청춘의 힘을 아바지하도록 광범한 청년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한다.

/글 오건기자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안도현 2024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월간 활동 가동

최근, 안도현 2024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월간 활동 가동식이 장백산문화박람장에서 성대히 개막했다.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안도현당위 통전부(안도현민족종교사무국)에서 주최했다.

활동에서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은 장백산문화박람회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 체원 구역에 참가하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변강의 석류꽃' 홍보 영상을 관람했다.

이어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노래 <석류꽃이 피다>, 시랑송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중국인이다>, 정경극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붉은 배를 보았다>, 무용 <희열>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면서 장내는 관중들의 박



수소리로 이어졌다. 공연은 전 현 여러 민족 군중들이 단결분투의 강대한 합력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변강진보에로 나아가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화폭을 전시했다.

근래 안도현은 '5대 프로젝트', '10대 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전 현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하여 민족단결진보의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함으로써 김만춘, 송철길 등 국

가급, 성급 민족단결진보 선전개인을 배출했으며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현', 소수민족특색마을 등 영예칭호를 획득했다.

안도현당위 통전부측은 향후 안도현은 민족단결진보 시범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민족단결진보 선전월간, '7진' 활동 등 제반 사업을 한층 더 틀어쥐어 주선물을 고양하고 궁정에너지를 전파하며 위대한 조국과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들의 동진감을 증진시켜 장백산 생태경제강현 건설에 민족단결의 힘을 아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전기자

/사진 안도현당위 통전부



불우학생 대학 등록금 마련에 나선 뢰봉반 로인들



화룡시에 거주하는 박선아학생은 올해 대학입시에서 훌륭한 성적을 따내 천진직업기술학원에 입학했다. 료해에 따르면 박선아학생의 아버지는 불구자이고 언니는 대학 2학년에 다니는데 이 가정은 현재 사회최저생활보장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박선아학생의 대학교 학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연길로인뢰봉반의 로인들은 주동적으로 모은 성금을 들고 8월 22일 박선아학생의 집을 찾아 대학교 입학에 대한 축복과 함께 학비 마련에 보탬이 되라고 3,000원을 박선아학생의 손에 쥐여주었다.

박선아학생과 그의 가정을 위한 연길로인뢰봉반 로인들의 선행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길로인뢰봉반의 로인들은 일찍 2016년에 화룡 북동탄광에서 막벌이하면서 어렵게 두 딸의 공부 뒤바라지를 하는 이 가정의 사연을 접하고 나서부터 박선아학생의 가정을 돕기 시작했는데 이번까지 이미 10번째로 사랑의 손길을 보냈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에서 로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잘하여 나라의 유용한 인재로 자라나라고 박선아학생을 격려했다.

박선아학생은 "꼭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앞으로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애심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철원특약기자

